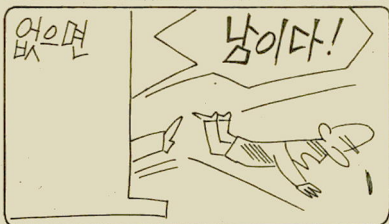


나대로 (4093) 선생 이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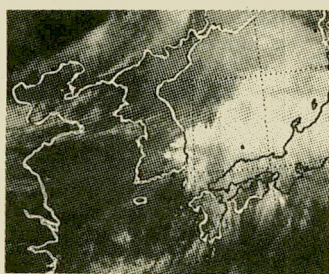
여성이 선택한 남성화장품

미스 캐논진

태평양

중부 및 호남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영남은 아침 한때 비 온뒤 개쨌다.
서해중부를 제외한 전해상에서 3~4m의 높은 파도가 일쨌다.

서울		16 ~ 24
仁川		16 ~ 24
水原		16 ~ 25
大田		17 ~ 27
清州		17 ~ 27



<17일 17시현재>



야마기시 前하사관 (홋카이도신문)

2차대전 당시 中國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舊日本軍 支那의 중군위안소를 관리했던 舊일본군 中國 河北省 衡水의 日軍인이 자신이 겪었던 상황 병대본부에서 부대지령을 중언 중군위안부관련 위안소를 운영했던 舊일본史實을 밝히는데 중요한 육군경리하사관 야마기시

당시 中國과견 日하사관 증언

히로시(山岸寛, 72)는 지난 13일 보도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나쁜 짓을 했" 안소에서는 16 ~ 28세의 韓이 이루어졌다"면서 "당시 함께 8명의 한국여성들을 안소로 모집한 뒤 모집했다. 당시 衡水보병부대의 위안소는 장부도 명명사도 없" "당시 회했다."

部隊명령 淸津출장 한국여성 8명 「사냥」

“늦었지만 「과거」사죄 : 배상청구 지원할터”

다. 인간으로서 부끄럽다』 半島출신 위안부만 15 ~ 30 명이었었다. 위안부 가운데는 하루 40명까지 일본병사를 상대 한 경우도 있었으며 병사 들은 1회에 1엔(당시 이 들병참담이 8엔)짜 요금을 냈으나 위안부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않고 대부분 위안부 신규모집경비로 쓰 매장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게 시의 증언으로 민간인이 경영하던 위안소와는 별개 로 舊일본군이 직접 위안 부를 모집하고 욕음징수와 사죄했다.

日本軍 「중군위안소」 직접 경영

(東京) 裴仁俊